

# 이슬람의 여성

이슬람의 여성과 유대-기독교 전통의 여성:  
속설과 실체

저자: **Dr. Sherif Muhammad Abdel Azeem** (샤리프 무함마드 압둘 아딤)  
Trans. By 일리야스

출판: **World Islamic Network (WIN), 1995**  
주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에서의 여성 지위

# 이슬람의 여성

이슬람의 여성과 유대-기독교 전통의 여성:  
속설과 실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하늘과 땅을 지탱하시는 분, 명확한 증거와 부인할 수 없는 논증으로 인류를 인도하고 종교 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들(그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을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찬미가 있기를. 저는 그분의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며, 그분의 은혜와 관대함이 더욱 커지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홀로 계시며 동반자가 없으신,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고, 관대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저는 우리의 지도자 무함마드가 그분의 종이자 사도이며, 그분의 사랑받는 자이고, 모든 피조물 중 최고임을 증언합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꾸란으로 영예를 받았으며, 이는 수 세기 동안 지속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안내를 구하는 자들을 위한 길을 보여주는 순나와 함께 보내졌습니다.

## 저작권 없음!!!

이 책은 이슬람의 참된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출판사의 허락 없이 현재 알려진 또는 앞으로 발명될 전자적, 기계적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복사나 녹음을 포함하여, 인쇄되거나 재생산되거나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여성

이슬람의 여성과 유대-기독교 전통의 여성:  
속설과 실체

저자: 샤리프 압둘 아딤 박사  
퀸즈 대학교, 킹스턴, 온타리오, 캐나다  
번역 : 일리야스

## 목차

서론 .....	2
제 1 부 - 이브의 책임 .....	5
제 2 부 - 이브의 유산 .....	7
제 3 부 - 수치스러운 딸들 .....	11
제 4 부 - 여성 교육 .....	13
제 5 부 - 부정하고 불결한 여성 .....	15
제 6 부 - 증언 .....	16
제 7 부 - 간음 .....	18
제 8 부 - 서약 .....	20
제 9 부 - 아내의 재산 .....	22
제 10 부 - 이혼 .....	25
제 11 부 - 어머니 .....	32
제 12 부 - 여성의 상속권 .....	35
제 13 부 - 과부들의 곤경 .....	37
제 14 부 - 일부다처제 .....	39
제 15 부 - 베일 .....	46
제 16 부 - 결론 .....	51
각주 .....	56

## 서론 (Introduction)

5년전, 나는 1990년 7월 3일자 토론토 스타(TorontoStar)에서 귀네 다이어(Gwynne Dyer)가 쓴 **가부장적 교리를 지닌 종교는 이슬람만이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이 기사는 몬트리올에서 열린 여성권력에 관한 회의에서 유명한 이집트 페미니스트 나왈 사다위 박사의 발언에 대한 참가자들의 격렬했던 반응을 서술했다. 그녀의 논란의 소지가 된 발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여성에 대한 가장 제한적인 요인들은 처음에는 구약성경의 유대교 전통에서 나타났고, 그 영향이 기독교를 거쳐 꾸란에 이어져 나타났다.", "모든 종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부장적이다" 그리고 "여성의 베일 착용은 특별히 이슬람적 관습이 아니라 자매종교들 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고대 문화 유산이다." 참가자들은 이슬람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따라서 사다위 박사는 맹렬한 공격을 받았다. 세계어머니운동의 버니스 뒤보아는 "사다위 박사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냅니다" 라고 선언했다. 이스라엘 여성 네트워크의 패널리스트 엘리스 샬비는 " 항의해야 겠습니다. 유대교에는 베일 개념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서구가 본래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관행들에 대해 이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렬한 항의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와 유대교 페미니스트들은 그 사악한 무슬림들과 같은 범주로 논의되는 것을 참고 앉아있지 않을 것이었다"고 귀네 다이어는 썼다.

나는 회의 참가자들이 특히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슬람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에 관하여 그리 놀라지 않았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슬람은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는 볼테르 나라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프랑스 학교에서 베일을 쓴 모든 무슬림 여성들을 퇴학시키라고 명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sup>1</sup> 프랑스에서 히잡을 쓴 어린 무슬림 여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반면, 십자가를 착용한 가톨릭 학생이나 키파(유대교 두건)를 쓴 유대인 학생은 그렇지 않았다. 히잡을 쓴 어린 무슬림 여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프랑스 경찰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이는 1962년 엘라베마 주지사 조지 윌리스가 인종차별주의를 위해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엘라베마 학교의 흑인 학생들의 입학을 막았던 다른 수치스러운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두 사건의 차이는 흑인 학생들은 미국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 동정을 받았다. 이에 케네디 대통령은 흑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 미국 방위군을 보내었다. 반면에 무슬림 소녀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들의 권리는 프랑스에서 거의 동정조차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오늘날 세계에서는 이슬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광범위한 오해와 두려움으로 퍼졌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회의에서 나를 가장 흥미롭게 하는 질문이 있다: 사다위나 그녀를 비판한 사람들의 발언이 사실인가? 다시 말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여성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다른 관점인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정말로 이슬람보다 여성에게 더 나은 대우를 제공하는가? 진실은 무엇인가?

이러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첫 번째 어려움은 공정하고 객관적이거나, 적어도 최선을 다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슬람의 가르침들이다.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가까운 친척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쳤다:

*“그대들이 (증언을) 말할 때는 그가 친척일지라도 공평을 기하라...” (꾸란 6:152);*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 공정함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그대들 자신과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불리할지라도 마찬가지라. 그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우선이시라”(꾸란 4:135).*

또 다른 큰 어려움은 주제의 압도적인 광범위함이다.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답을 찾기 위해 **성경, 종교 백과사전, 유대교 백과사전**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또한 학자, 지지자, 비평가들이 쓴 다양한 종교에서 여성의 위치를 논의하는 여러 책을 읽었다. 다음 장들에 제시된 자료는 이 소규모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요한 결론을 담고 있다.

나는 완벽히 객관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그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연구 전반에 걸쳐 꾸란적으로 공정하게 말하는 자세로 접근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이 서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이 유대교나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슬림으로서 우리는 두 종교의 신성한 기원을 믿는다. 모세와 예수를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무슬림이 될 수 없다. 나의 목표는 단지 이슬람을 옹호하고, 서양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인류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마지막 참된 메시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오로지 교리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나의 관심은 주로 오늘날 세계의 수백만 신도들이 실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래 자료에 나타난 세 종교에서의 여성의 위치이다. 따라서 인용된 증거의 대부분은 꾸란,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 성경, 탈무드, 그리고 기독교를 정의하고 형성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한 가장 영향력 있는 교부들의 발언에서 비롯된다. 원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종교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을 보고 그 종교를 판단하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문화를 종교와 혼동하며,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종교 경전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 1 부 - 이브의 책임(Eve's Fault)

**세** 종교는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에 동의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전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남자 아담과 첫 번째 여자 이브의 창조 직후부터 의견이

갈린다. 아담과 이브의 창조에 대한 유대-기독교 개념은 창세기 2:4-3:24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들 둘 다에게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했다. 뱀이 이브를 유혹하여 그것을 먹게 했고, 이브는 다시 아담을 유혹하여 함께 먹게 했다.

하나님이 아담을 꾸짖자, 그는 모든 책임을 이브에게 돌렸다. "당신이 제 곁에 두신 여자가 나무에서 열매를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 하리니; 네가 고통으로 자녀를 낳을 것이며, 네 욕망은 네 남편을 향할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 이니라."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내의 말만 듣고 나무에서 먹었으므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으니; 네가 평생토록 고통으로 그것을 먹으리라..."

이슬람의 첫 창조 개념은 꾸란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아담아! 그대와 그대의 아내는 천국에 거주하라. 그 후 그대들은 원하는 곳 어디서든지 먹되, 이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그대들은 부당한 자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 그러자 사탄이 그 둘에게 속삭였으니, 그들에게 가려져 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가 말하였노라. *“그대들의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이 나무를 금하신 것은 오직 그대들이 천사가 되지 못하거나, 그대들이 영생하는 자들 중의 일부가 되지 못하기 위함이라”* 그는 그 둘에게 *“진실로 나는 그대들을 위한 조언자라”* 라고 맹세하였노라. 그렇게 그는 기만으로 그 둘을 유인하였노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무(의 열매)를 맛 보았을 때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이 그들에게 드러났고, 그들은 천국의 잎사귀로 자신들(의 몸)을 덧대기 시작하였노라.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노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 나무를 금하고, 실로 사탄은 그대들의 분명한 적이라 그대들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 둘이 말하였노라. *“저희의 주님! 저희는 저희 자신을 부당히 다루었습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진실로 저희는 손실자들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꾸란 7:19-23).

창조 이야기의 두 설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몇 가지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꾸란은 성경과 달리 아담과 이브 둘 다에게 동등한 책임을 둔다. 꾸란 어디에서도 이브가 아담을 유혹하여 나무를 먹게 했다거나, 그녀가 그 보다 먼저 먹었다는 약간의 암시조차 찾을 수 없다. 꾸란의 이브는 유혹자도, 속이는 자도 아니다. 더욱이 이브는 출산의 고통에 대해 비난받지 않는다. 꾸란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누구를 처벌하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 둘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 둘 다 용서하셨다.

## 2부 - 이브의 유산 (Eve's Legacy)

성경에서 유혹자 이브는 유대-기독교 전통 전반에 걸쳐 여성에게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든 여성들은 그들의 어머니인 성경의 이브로부터 그녀의 죄와 간계를 모두 물려받았다고 믿어졌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모두 신뢰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열등하며, 사악하다. "월경, 임신, 출산은 여성이 저주받은 존재라는 증거로 여겨졌으며, 이는 인류의 원죄에 대해 여성이 마땅히 치러야 할 영원한 처벌로 간주되었다." 성경의 이브가 그녀의 모든 여성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려면, 역대 가장 중요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글을 살펴봐야 한다.

구약성경부터 시작하여 지혜 문학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발췌문을 보자.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

*"나는 죽음보다 더 쓴 여자를 발견했다. 그 여자는 올라미요, 그 마음은 함정이며, 그 손은 사슬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로부터 벗어나지만, 죄인은 그녀에게 잡히리라... 내가 여전히 찾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은, 나는 천 명 중 한 명의 정직한 남자를 발견했지만, 그들 모두 중에서 정직한 여자는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 (전도서 7:26-28)*

가톨릭 성경에 있는 히브리 문헌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을 읽는다:

*"여자의 사악함에 가까운 사악함은 없다... 죄는 여자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녀 덕분에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한다." (집회서 25:19,24)*

유대교 랍비들은 타락의 결과로 여성에게 내려진 아홉 가지 저주를 나열했다:

*"여자에게 그분은 아홉 가지 저주와 죽음을 주셨다: 월경의 피와 처녀성의 고난;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자녀 양육의 고난; 그녀의 머리는 애도하는 자처럼 가려져 있다; 그녀는 주인을 섬기는 노예나 여종처럼 귀를 뚫는다; 그녀는 증인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 후에 - 죽음."<sup>2</sup>*

오늘날까지 정통 유대교 남성들은 매일 아침 기도에서 다음을 암송한다.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한다.

*"당신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sup>3</sup>*

많은 유대교 기도서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기도로는:

*"나를 이방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무지한 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sup>4</sup>*

성경의 이브는 유대교보다 기독교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 그녀의 죄는 전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명 이유에 대한 기독교 개념이 이브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죄를 짓고 아담이 그녀를

따르도록 유혹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 둘을 천국에서 지상으로 추방하셨고, 지상은 그들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를 모든 후손들에게 물려주었고,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인간을 '원죄'로부터 정화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야만 했다. 따라서 이브는 그녀 자신의 실수, 그녀 남편의 죄, 모든 인류의 원죄,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해서, 유혹자인 여자가 인류의 타락을 야기한 것이다. 5 그녀의 딸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그녀처럼 죄인이며 그렇게 취급되어야 한다. 신약성경에서 성 바울의 엄격한 어조를 들어보라: "여자는 조용히 온전히 순종하며 배워야 한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는 침묵해야 한다.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브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의 유혹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다." (디모데전서 2:11-14)

성 터툴리안(St. Tertullian)은 '가장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라 말하면서 성 바울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다: 6  
"너희가 각각 이브라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 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이 시대에도 살아있다: 그 죄도 필연적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너희는 악마의 문이다: 너희는 금단의 나무에 봉인을 붙인다: 너희는 신성한 법의 첫 번째 배반자다: 너희는 악마가 감히 공격할 수 없었던 그를 설득한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너무 쉽게 파괴했다. 너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어야만 했다."

성 어거스틴(St. Augustine)은 그의 전임자들의 유산에 충실했으며,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그것이 아내이든 어머니이든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모든 여자에게서 조심해야 할 유혹자 이브다... 나는 자녀를 낳는 기능을 제외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다."

수세기 후,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여전히 여성을 결함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본성에 관해서는, 여자는 결함이 있고 잘못 태어난 것이다. 왜냐하면 남성 씨앗의 능동적 힘은 남성적 성의 완벽한 모습의 생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자의 생산은 능동적 힘의 결함이나 어떤 물질적 성질 문제, 또는 심지어 어떤 외부 영향으로부터 온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여성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볼 수 없지만,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많은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는 것이라 한다: "여성은 집에 머물러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한다. 여성이 출산으로 지치고 결국 죽더라도 상관없다. 출산으로 죽게 하라, 그것이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다".

거듭해서 모든 여성들은 창세기가 배경이 되어 유혹자 이브의 이미지로 비하된다. 요약하자면, 여성에 대한 유대-기독교 개념은 이브와 그녀의 여성 후손의 죄스러운 본성에 대한 믿음으로 퍼져 있다. 이제 꾸란이 여성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을 돌리면, 우리는 곧 여성에 대한 이슬람 개념이 유대-기독교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꾸란에 기록되어있기를

"무슬림 남자와 여자, 믿는 남자와 여자, 경건한 남자와 여자, 진실한 남자와 여자, 인내하는 남자와 여자, 겸손한 남자와 여자, 자선하는 남자와 여자, 금식하는 남자와 여자, 정절을 지키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남자와 여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커다란 보상을 준비하셨노라" (꾸란 33:35).

" 믿는 남성들과 믿는 여성들은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라. 그들은 선을 명하고 악을 금하며, 성실히 예배를 드리고 의무 회사금(자카)을 내며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따르노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곧 자비를 베푸실 자들이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존엄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이라" (꾸란 9:71).

" 그리하여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으니: "실로 나는 그대들 중 남자든 여자든 (선행을) 실천하는 자의 어떠한 행위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서로가 서로의 일부라..." (꾸란 3:195).

"악을 행한 자는 오직 그와 유사한 것으로써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한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 것이며 그곳에서 따짐 없이 양식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꾸란 40:40).

" 남자든 여자든 믿는 자로서 선행을 실천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정녕 그에게 행복한 삶을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녕 그들이 행하던 것 중 가장 훌륭한 선행으로써 그들의 몫을 보상할 것이다." (꾸란 16:97).

여성에 대한 꾸란의 견해가 남성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상에서의 숭고한 목표는 주님을 숭배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며, 악을 피하면 둘이 같이 각각 평가될 것이다. 꾸란은 여자가 악마의 문이거나 본성적으로 기만자라고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꾸란은 또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다. 꾸란에 따르면, 지상에서 여자의 역할은 출산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다른 모든 남자가 해야 하는 만큼 많은 선행을 해야 한다. 꾸란은 정직한 여자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꾸란은 모든 신자들에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모 마리아와 파라오의 아내와 같은 이상적인 여성들을 본보기로 따르도록 지시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예로 파라오의 아내를 드시노라. 그녀가 말하였노라. "저의 주님! 천국에서 저를 위해 당신께 가까운 곳에 집을 지어 주십시오. 그리고 파라오와 그의 행위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고 부당한 무리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므란의 딸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자신의 순결을 지켰기에 나는 내가 창조한 영혼(가브리엘 천사)을 통해 그 안에 숨을 불었노라. 그녀는 자신의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서들을 믿었으며 부단히 복종하는 자들 중의 하나였노라."(꾸란 66:11-12)

### 3 부 - 수치스러운 딸들 (Shameful Daughters)

사실, 여성에 대한 성경과 꾸란의 태도 차이는 여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된다. 예를 들어, 성경은 딸이 태어나면 어머니의 의례적 부정 기간이 아들이 태어날 때보다 두 배나 길다고 명시한다 (레위기 12:2-5). 가톨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말한다:

"딸의 출생은 손실이다"(집회서 22:3).

이 충격적인 진술과 대조적으로, 아들들은 특별한 찬사를 받는다:

"아들을 교육하는 남자는 그의 적에게 부러움을 살 것이다"(집회서 30:3).

유대교 랍비들은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 유대인 남성들에게 자손을 낳는 것을 의무로 만들었다. 동시에 그들은 남자 자녀에 대한 명백한 선호를 숨기지 않았다: "자녀가 남자인 사람들은 행운이지만 여자인 사람들에게는 불행하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기뻐한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슬퍼한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세상에 올 때, 평화가 세상에 온다... 여자아이가 올 때,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sup>1</sup>

딸은 고통스러운 짐으로, 아버지에게 잠재적인 수치스러움의 원천으로 여겨졌다:

"너의 딸이 고집이 센가? 그녀가 너를 너의 적들에게 웃음거리, 마을의 화제, 일반적인 소문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날카롭게 감시하라, 그리고 너를 공개적인 수치스러움에 빠뜨리지 않도록"(집회서 42:11).

"고집 센 딸을 엄격히 통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받는 어떤 관용도 남용할 것이다. 그녀의 뻔뻔한 눈을 엄격히 감시하라, 그녀가 너를 욕되게 해도 놀라지 말라."

(집회서 26:10-11)

이슬람 이전 이교도 아랍인들로 하여금 여아 살해를 실행하게 한 것은 딸을 수치의 원천으로 대하는 바로 이 생각이었다. 꾸란은 이 흉악한 관습을 엄중히 비난했다:

*"그들 중 하나에게 여자아이의 출생 소식이 전해지면,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는 슬픔으로 가득 차니, 그가 받은 나쁜 소식 때문이라. 그는 수치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노라. 그가 그녀를 경멸 속에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땅에 묻을 것인가? 그들의 판단이 참으로 악하도다" (꾸란 16:59)*

이 사악한 관습이 아라비아에서 근절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꾸란이 강력한 용어로 비난하며 도덕적 경종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꾸란의 단호한 태도가 아니었다면 이 범죄는 결코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꾸란 16:59, 43:17 81:8-9 참조).

더욱이 꾸란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사이에 어떤 구별도 하지 않는다. 성경과 대조적으로, 꾸란은 여자아이의 출생을 남자아이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자 축복으로 여긴다. 꾸란은 심지어 여자아이의 선물을 먼저 언급한다:

*"(일곱) 하늘과 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노라.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시니 원하시는 자에게 여아를 주시고 원하시는 자에게 남아를 주시노라" (꾸란 42:49)*

초기 이슬람 사회에서 여아 살해 관습을 근절하기 위해, 예언자 무함마드는 딸을 축복으로 여기고 정성껏 양육하는 이들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딸들을 양육하는 데 관여하고 그들에게 자비로운 대우를 하는 자는, 그들이 그를 지옥불로부터의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라" (부카리와 무슬림)*

*"두 딸이 성숙할 때까지 돌보는 사람 누구든지, 그와 나는 부활의 날에 이렇게 올 것이라; 그리고 그 분은 손가락을 나란히 모으셨다." (무슬림)*

## 4 부 - 여성 교육 (Female Education)

성서와 꾸란의 여성관 차이는 갓 태어난 여아에 대한 처우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된다. 자신의 종교를 배우고자 노력하는 여성을 대하는 두 종교의 태도를 비교해 보겠다.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인 '토라 (Torah)'이다. 그러나 탈무드에 따르면, "여성은 토라 학습에서 배제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일부 유대인 랍비들은 단호히 "여성에게

토라의 말씀을 전해주기보다는 차라리 불태워 버려라"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자는 외설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선언한다.

신약 성경의 성 바울의 태도는 더 밝지 않다: 8

"모든 성도의 교회들의 전통에 따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고린도전서 14:34-35)**

여자가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완전한 복종 상태에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유일한 정보 출처가 집에 있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시야를 넓힐 수 있는가?

공정함을 위해 이제 꾸란의 입장은 다른지 물어야 한다. 꾸란에 서술된 한 짧은 이야기가 그 입장을 간결하게 요약한다. 무슬림 여성 카울라(Khawlah)에게 남편 아우스(Aws)가 화가 난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내 어머니의 등과 같소.." 이 말은 이교도 아랍인들 사이에서 이혼 선언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남편은 부부로서의 책임을 면제받으면서도, 아내는 남편의 집을 떠나거나 다른 남자와 결혼할 자유를 주지 않았다.

비참한 상황에 처한 카울라는 자신의 사건을 호소하기 위해 곧장 이슬람의 예언자를 찾아갔다. 예언자는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그녀에게 인내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카울라는 파탄 위기에 처한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해 예언자에게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항변하였다.

곧 꾸란의 계시가 내려졌다; 카울라의 탄원은 받아들여지고, 신성한 신의 판결이 이 부당한 관습을 폐지했다. 논쟁하는 여인을 의미하는 알-무자딜라(Al-Mujadilah)라는 제목의 꾸란 전체 장(제 58 장)이 이 사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남편에 관하여 그대(무함마드)와 논쟁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여성의 말을 들으셨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대 둘의 대화를 들으시니 실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라..." (꾸란 58:1)

꾸란 속 여성은 이슬람의 예언자와도 논쟁할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침묵하라고 지시할 권리가 없다. 그녀는 법과 종교 문제에서 남편을 유일한 참고인으로 여길 의무가 없다.

## 5 부 - 부정하고 불결한 여성 (Unclean Impure Women)

유대교의 생리 여성에 관한 법률과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구약성경은 생리를 의례적으로

불결하고 더럽다고 여긴다. 더욱이 그녀의 불결함은 다른 사람들도 "감염"시킨다. 그녀가 만지는 사람이나 물건은 하루 동안 부정하게(unclean) 된다:

*"여자가 정상적인 생리가 있을 때, 그녀의 월경 기간의 불결은 7일 동안 지속될 것이며, 그녀를 만지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다. 그녀가 그녀의 기간 동안 눕는 모든 것은 불결할 것이며, 그녀가 앉는 모든 것은 불결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녀의 침대를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녀가 앉았던 것을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하며,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다. 그것이 침대를 그녀가 앉았던 것이든, 누구든지 그것을 만지면 저녁까지 불결할 것이다."*(레위기 15:19-23)

그녀들의 "오염시키는" 본성 때문에, 월경하는 여자는 때때로 접촉 피하기 위해 "격리"되었다. 그녀는 의례적 불결함 기간 동안 "부정한 집"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집으로 보내졌다.<sup>9</sup> 탈무드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어도 생리 중인 여성을 "치명적"이라고 본다:

*"우리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 만약 월경하는 여자가 두 (남자) 사이를 지나가면, 그것이 그녀의 생리가 초반이면 한명을 죽일 것이고, 생리 끝이라면 그녀는 그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bPes. 111a).*

더욱이, 월경하는 여자의 남편은 심지어 발 아래 먼지라도 그녀에 의해 부정하게 되었다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아내, 딸, 또는 어머니가 월경하는 사제는 회당에서 사제 축복을 낭독할 수 없었다.<sup>10</sup> 많은 유대인 여성들이 여전히 월경을 "저주"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sup>11</sup>

이슬람은 월경하는 여자가 그 어떤 종류의 "전염성이나 불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녀는 "만질 수 없는" 존재도 아니고 "저주받은" 존재도 아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제한만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기혼부부는 월경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 사이의 다른 어떤 신체적 접촉은 허용된다. 월경하는 여자는 그녀의 생리기간 동안 예배와 음식과 같은 일부 의식에서 면제된다.

## 6 부 - 증언하기 (Bearing Witness)

꾸란과 성경이 의견을 달리하는 또 다른 문제는 여성의 증언 문제이다. 꾸란이 금융 거래를 다루는 신자들에게 두 명의 남성 증인 또는 한 명의 남성과 두 명의 여성을 구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이다 (**꾸란 2:282**). 그러나 꾸란이 다른 상황에서는 여성의 증언을 남성의 증언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여성의 증언은 남성의 증언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 만약 남자가 아내의 간통을 고소하면, 그는 꾸란에 의해 남성은 아내의 죄의 증명하기 위해 다섯 번 엄숙히 선서해야 한다. 아내가 부인하고 마찬가지로 다섯 번 선서하면, 그녀는

유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든 결혼관계는 결국 파기된다 (**꾸란 24:6-11**).

반면에, 초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12 랍비들은 타락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내려진 아홉 가지 저주 중에 여성들이 증언할 수 없다는 것을 포함시켰다 ("이브의 유산" 섹션 참조). 오늘날 역시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랍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13 랍비들은 **창세기 18:9-16** 을 인용하여 여성들이 증언할 수 없는 이유를 정당화하는데, 거기에는 이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거짓말을 했다고한다. 랍비들은 이 사건을 여성이 증언할 자격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창세기 18:9-16** 에 서술된 이 이야기가 꾸란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사라의 거짓말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다는 것이다 (**꾸란 11:69-74, 51:24-30**). 기독교 서구에서도 지난 세기 말까지 교회법과 민법 모두 여성이 증언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14

만약 남자가 아내의 외도를 고발할 때, 성경에 따르면 그녀의 증언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고발당한 아내는 시련을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재판에서 아내는 그녀의 유죄 또는 무죄를 증명하기로 되어 있는 복잡하고 굴욕적인 의식을 치르게 한다 (**민수기 5:11-31**). 만약 그녀가 이 시련 후에 유죄로 판명되면, 그녀는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무죄 판명되었을 때, 고발한 그녀의 남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는 것이 된다.

게다가, 만약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난하면, 그녀 증언은 인정되지 않는데. 인정 받기위해서는 그녀의 부모가 마을 장로들 앞에 그녀의 처녀성의 증거를 제출 해야한다. 만약 부모가 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다면, 그녀는 아버지 집 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만약 부모가 그녀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남편은 단지 은 100 세겔의 벌금을 내면 되고 그가 사는 동안 그녀와 이혼할 수 없다:

"만약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고, 그녀와 동침한 후, 그녀를 싫어하여 그녀를 비방하고 나쁜 평판을 하고, '나는 이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의 처녀성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그 여자의 부모는 성문에 있는 마을 원로들에게 그녀가 처녀였다는 증거를 가져가야 한다. 여자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내 딸을 이 남자와 결혼시켰지만, 그는 그녀를 싫어한다. 이제 그는 그녀를 비방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 내 딸의 처녀성의 증거가 있다.' 그러면 그녀의 부모는 마을의 장로들 앞에 천을 보여주고, 원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은 100 세겔의 벌금을 물리고 그것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줄 것이니, 이 남자가 이스라엘 처녀에게 나쁜 평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아내가 될 것이며; 그는 그가 사는 동안 그녀와 이혼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혐의가 사실이고 여자의 처녀성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집 문으로 끌려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동안 난잡하게 행동하고 이스라엘에 수치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신명기 22:13-21)

## 7 부-간음 (Adultery)

간통은 모든 종교에서 죄로 여겨진다. 성경은 간음자와 간음한 자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레위기 20:10).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동등하게 처벌한다 (꾸란 24:2).

그러나 꾸란의 간음 정의는 성경의 정의와 매우 다르다. 꾸란에 따르면, 간통은 기혼 남자나 기혼 여자가 불륜에 연루된 행위이다. 성경은 기혼 여성의 불륜만을 간통으로 간주한다 (레위기 20:10, 신명기 22:22, 잠언 6:20-7:27).

"만약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자는 것이 발견되면, 그녀와 잔 남자와 여자 모두 죽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신명기 22:22).

"만약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통한 남자와 간통한 여자 모두 죽임을 당해야 한다" (레위기 20:10).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만약 기혼 남자가 미혼 여자와 잔다면, 이것은 전혀 범죄가 아니다. 미혼 여자들과 불륜을 갖는 기혼 남자는 간음자가 아니며 그와 관련된 미혼 여자들은 간음한 여자가 아니다. 간통죄는 남자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기혼 여자와 잘 때만 저질러진다. 이 경우 남자는 기혼이 아니더라도 간통자로 간주되며, 여자는 간통한 여자로 간주된다. 간단히 말해서, 간통은 기혼 여자가 연루된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이다. 기혼 남자의 불륜은 그 자체로 성경에서 범죄가 아니다. 왜 이중 도덕 기준인가? 종교 백과사전(Encyclopaedia Judaica)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고 간통은 남편의 그녀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다; 남편의 소유물로서 아내는 그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 <sup>15</sup> 즉, 만약 남자가 기혼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는 다른 남자의 재산을 침해한 것이며, 따라서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만약 기혼 남자가 미혼 여자와 불륜을 갖는다면, 그 여자에게서 얻은 그의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약 기혼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 그 남성과의 자녀들은 사생아로 간주되어 개종자와 사생아를 제외한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금지는 간음의 오점이 약해질 때까지 10 세대 동안 자녀의 후손들에게 전해진다. <sup>16</sup>

반면에 꾸란은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의 소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꾸란은 배우자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설명한다 :

" 그리고 그분의 징표들 중의 하나는 그분께서 그대들 자신으로부터 배우자를 창조하시니 그대들이 그녀에게서 편안함을 찾는 것이며 또한 그분께서 그대들 사이에 사랑과 자비심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실로 그 안에는 숙고하는 사람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노라" (꾸란 30:21)

이것이 결혼에 대한 꾸란의 개념이다: 소유나 이중잣대가 아닌 사랑, 자비, 평온이다.

## 8 부 - 서약 (Vows)

성경에 따르면, 남자는 하나님께 한 어떤 서약이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는 자신의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반면에 여자의 서약은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다면 아버지에 의해, 결혼했다면 남편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한다. 만약 아버지/남편이 딸/아내의 서약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녀가 한 모든 서약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듣고 금지한다면, 그녀의 서약이나 그녀가 지킨 서약은 모두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만든 어떤 서약이나 스스로를 부정하겠다는 어떤 맹세도 확인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민수기 30:2-15)*

왜 여자의 말은 구속력이 없는가? 답은 간단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결혼 후에는 남편이 소유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딸에 대한 통제는 절대적이어서, 원한다면 딸을 팔 수도 있었다! 랍비들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남자는 딸을 팔 수 있지만, 여자는 딸을 팔 수 없다; 남자는 자기 딸을 혼인시킬 수 있지만, 여자는 자기 딸을 혼인시킬 수 없다." <sup>17</sup> 랍비 문헌은 또한 결혼이 아버지에서 남편으로의 통제권 이전을 나타낸다고 명시한다: "혼인은 여자를 신성불가침한 소유물 - 남편의 침해할 수 없는 재산 - 로 만든다..." 물론 여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간주된다면, 그녀는 소유자가 승인하지 않는 어떤 서약도 할 수 없다.

여성의 서약에 관한 이 성경의 지시가 20 세기 초까지 유대-기독교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주목할 만하다. 서구 세계의 기혼 여성은 법적 지위가 없었다. 그녀의 어떤 행위도 법적 가치가 없었다. 남편은 그녀가 만든 어떤 계약, 거래, 또는 합의 든 모두 취소할 수 있었다. 서구 여성들(유대-기독교 유산의 가장 큰 상속자)은 그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되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여겨졌다. 서구 여성들은 거의 2 천년 동안 아버지 및 남편의 성경적 태도로 인해 여성위치에서 고통받았다. <sup>18</sup> 이슬람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무슬림의 서약은 그/그녀에게 구속력이 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서약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신이 만든 엄숙한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꾸란에 명시된 대로 속죄 되어야 한다:

*"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맹세 속의 말실수를 이유로 그대들을 힐책하지 않으시노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대들이 결심한 맹세를 이유로 그대들을 힐책하시노라. 그에 대한 속죄 의식은 그대들이 그대들의 가족에게 주는 음식 중 무난한 것으로써 열 명의 불우한 자들에게 음식을 베풀거나 또는 그들(가족)이 입는 옷 또는 노비 해방이라. 그러나 구하지 못한 자는 사흘 동안의 단식이라. 이것은 그대들이 맹세했을 때 그대들의 맹세에 대한 속죄 의식이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맹세를 지키라" (꾸란 5:89).

예언자 무함마드의 동료들, 남성과 여성은 모두 직접 그에게 충성 맹세를 하곤 했다.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그에게 와서 충성맹세를 했다:

"선지자여! 믿는 여성들이 그대에게 이주하여 와서 그대에게 맹세하길 하나님께 어떤 대등한 존재도 두지 않을 것이며, 도둑질하지 않고, 불법 성관계(지나)를 범하지 않고,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팔과 다리 사이에서 지어낸 커다란 거짓말을 범하지 않고, 선행에 관하여 그대를 거스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대는 그녀들의 맹세를 받아들이고 그녀들을 위해 용서를 빌어 주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자애로우신 분이라" (꾸란 60:12)

남성이 딸이나 아내를 대신하여 맹세를 할 수 없다. 또한 남성은 자신의 여성 친척이 한 서약을 폐기할 수도 없었다.

## 9 부 - 아내의 재산 (Wife's Property)

세 종교는 결혼과 가족 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공유한다. 그들은 또한 가족에 대한 남편의 지도력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력의 한계에 관해서는 세 종교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슬람과 달리, 유대-기독교 전통은 사실상 남편의 지도력을 아내에 대한 소유권으로 확장한다.

아내에 대한 역할에 관한 유대교 전통은 그가 노예를 소유하듯이 그녀를 소유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sup>19</sup> 이 개념은 간통법에서의 이중 잣대와 남편이 아내의 서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유였다. 이 개념은 또한 아내가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한 어떤 통제도 거부당하는 원인이 되었다. 유대인 여성이 결혼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재산과 수입에 대한 모든 통제권이 남편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유대교 랍비들은 그가 아내를 소유한다는 것의 필연적 결과로서 남편은 아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한 사람이 이 여자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가 그녀의 재산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가 여자를 취득했으니,

그녀의 재산도 취득해야 하지 않겠는가?" 20 따라서 가장 부유한 여자의 결혼은 사실상 무일푼이 되게 했다. 탈무드는 아내의 재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여자가 어떻게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가; 그녀의 것이 무엇이든 남편의 것인가? 그의 것은 그의 것이고 그녀의 것도 역시 그의 것이다... 그녀의 수입과 그녀가 거리에서 발견한 어떤 것도 그의 것이다. 가정용품들, 심지어 식탁 위의 빵 부스러기까지도 그의 것이다. 만약 그녀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여 먹인다면,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훔치는 것이 될 것이다..." (San 71a,Git,62a).*

사실 유대인 여성의 재산은 구혼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유대인 가족은 결혼의 경우 지참금으로 사용될 아버지의 재산 중 딸의 몫을 할당하곤 했다. 유대인 딸들을 아버지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짐이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지참금이었다. 아버지는 수년간 딸을 키우고 나서 큰 지참금을 제공하여 그녀의 결혼을 준비해야 했다. 따라서 유대인 가족에게 딸은 부담이며 자산이 아니었다.21 이러한 책임은 딸의 탄생이 옛 유대 사회에서 기쁨으로 축하받지 못한 이유가 설명된다 ("수치스러운 딸들?" 섹션 참조). 지참금은 임대차조건 하에 신랑에게 제공되는 결혼 선물이었다. 남편은 지참금의 실질적 소유자 역할을 하지만 그것을 팔 수는 없었다. 신부는 결혼 순간 지참금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잃었다. 더욱이 그녀는 결혼 후 일해야 했고 그녀의 모든 수입은 남편에게 가야 했는데 그건 남편의 의무인 그녀의 생계비에 대한 대가였다. 그녀는 단 두 가지 경우에만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혼 또는 남편의 죽음. 만약 그녀가 먼저 죽는다면, 그가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반대로 남편이 죽는 경우, 아내는 결혼 전의 자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지만 사망한 남편의 재산 중 어떤 몫도 상속받을 자격이 없었다. 신랑 또한 신부에게 결혼 선물을 주어야 하지만, 결국은 결혼기간 동안 그 모든 선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신랑이다. 22

기독교는 최근까지 유대교 전통을 따랐다. 기독교 로마 제국(콘스탄티누스 이후)의 종교 및 민사 당국 모두 결혼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재산 계약을 요구했다. 가족들은 딸들에게 점점 더 많은 지참금을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남성들은 더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여성의 가족들은 통상적 관례 보다 결혼을 더 늦게 연기했다.23 교회법(Canon law)에 따라, 아내는 결혼이 무효화될 경우 지참금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그녀가 간통죄가 당하지 않을 때 받을 권리가 있었다. 반대의 경우 그녀는 지참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그것은 남편의 손에 넘어갔다. 24 교회법과 민법에 따라 기독교 유럽과 미국의 기혼 여성은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까지 재산권을 잃었다. 예를 들어, 영국법에 따른 여성의 권리는 1632 년에 편찬되고 출판되었다. 이러한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남편이 가진 것은 그 자신의 것이다. 아내가 가진 것은 남편의 것이다."25 아내는 결혼하면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또한 상실했다. 그녀의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었고 남편은 그녀가 한 어떤 매매나 증여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무효화할 수 있었다. 그녀가 체결한 계약에서 상대방은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범죄자로 취급되었다. 더욱이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남편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다.26 기혼 여성은 법의 눈에 사실상 미성년자로 취급되었다. 아내는 단순히 남편에게 속했고 따라서 재산, 법적 인격, 여성의 가족이름을 상실한다. 27

이슬람은 서기 7세기 이후로, 유대-기독교 서구가 아주 최근까지 여성에게서 박탈했던 독립적 인격을 기혼 여성에게 허용했다. 이슬람에서 신부와 그녀의 가족은 신랑에게 선물을 줄 어떤 의무도 없다. 무슬림 가족의 여자는 어떤 부담도 아니다. 여자는 이슬람에 의해 매우 존엄하게 여겨져서 잠재적인 남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선물을 줄 필요가 없다. 결혼 선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신랑이다. 이 선물은 그녀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신랑도 신부의 가족도 그것에 대한 어떤 몫이나 통제권도 없다. 일부 오늘날 무슬림 사회에서는 다이아몬드로 10만 달러의 결혼 선물이 드문 일이 아니다. 28 신부는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결혼 선물을 보유한다. 남편은 아내가 자유로운 동의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내의 재산에 대한 어떤 몫도 허용되지 않는다.29 꾸란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

*"그대들은 흔쾌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그녀의 지참금을 주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그대들을 위해 그 중의 일부를 포기함에 기꺼이 만족한다면 그대들은 그것을 쉬이 정갈히 취하라."* (꾸란 4:4).

아내의 재산과 수입은 그녀가 완전히 통제하며, 그녀와 자녀들의 생계는 남편의 책임이므로 그녀의 수입은 오직 그녀만을 위한 것이다. 30 아내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녀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가족의 공동 부양자로 행동할 의무가 없다. 부부는 서로에게서 상속받는다. 더욱이 이슬람의 기혼 여성은 독립적인 법적 인격과 자신의 가족 이름을 유지한다. 31 한 미국 판사가 한때 무슬림 여성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무슬림 여자는 열 번 결혼할 수 있지만, 그녀의 개성은 여러 남편들에게 흡수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법적 인격을 가진 태양계 행성과 같다."* 32

## 10 부 - 이혼 (Divorce)

**세** 종교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 놀라운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는 이혼을 전적으로 혐오한다. 신약성경은 결혼의 불가해체성을 명백하게 옹호한다. 예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혼한 자는 아내의 불륜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며,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32).

이 타협 없는 이상은 의심할 여지없이 비현실적이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결코 달성한 적이 없는 도덕적 완벽 상태를 전제한다. 부부가 그들의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혼 금지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 짝지어진 부부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함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전 기독교 세계가 이혼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유대교는 이유가 없어도 이혼을 허용한다. 구약성경은 남편이 단지 아내를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권리를 준다:

*"만약 한 남자가 그녀에 대해 무언가 품위 없는 것을 발견하면 불쾌하게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그의 집에서 그녀를 내쫓고,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고,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그녀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주고 그의 집에서 그녀를 내쫓고, 그가 죽는다면, 그녀와 이혼한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졌기에 다시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명기 24:1-4)**

위의 구절에서 언급된 "불만족스러운", "품위 없는", "싫어한다"는 단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 불일치 때문에 유대교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논쟁을 야기했다. 탈무드는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록한다:

*"삼마이(Shammai) 학파는 남편은 아내에게서 성적 부정을 저지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힐렐(Hillel) 학파는 그녀가 단지 그를 위해 음식을 망쳤다 해도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 랍비 아키바는 그가 단순히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다른 여자를 발견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다" (Gittin 90a-b).*

신약성경은 삼마이파의 의견을 따르는 반면, 유대교 법은 힐렐파와 랍비 아키바의 33 의견을 따랐다. 힐렐파의 견해가 우세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유없이 아내와 이혼할 자유를 주는 것이 유대교 법의 끊이지 않는 전통이 되었다. 구약성경은 남편에게 "불만족스러운" 아내와 이혼할 권리를 줄 뿐만 아니라, "나쁜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의무로 여긴다:

*"나쁜 아내는 굴욕과 풀이 죽은 표정,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져온다. 손이 흐트러지고 무릎이 약한 사람은 아내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남자다. 여자는 죄의 근원이며, 우리 모두가 그녀를 통해 죽는다. 물이 새는 물조를 방지하듯이 나쁜 아내가 마음대로 말하게 두지 마시오. 그녀가 당신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혼하고 그녀를 멀리 보내시오"*

**(집회서 25:25).**

탈무드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한 여러 구체적인 특정 행동을 기록했다:

"만약 그녀가 거리에서 먹었다면, 만약 그녀가 거리에서 탐욕스럽게 술을 마셨다면, 만약 그녀가 거리에서 젖을 먹었다면, 모든 경우에 랍비 메이르는 그녀가 남편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Git.89a).

탈무드는 또한 불임 아내(10 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와 이혼하는 것을 의무로 만들었다: "우리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만약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고 그녀와 함께 10 년 동안 살았는데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면, 그는 그녀와 이혼해라" (에브서 64a).

반면 아내들은 유대교 법에 따라 이혼을 먼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유대인 아내는 강력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유대교 법정 앞에서 이혼권을 주장할 수 있다.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는 매우 적다. 이 사유는 신체적 결함이나 피부질환이 있는 남편, 부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편 등이 포함된다. 법정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지지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해소할 수는 없다. 오직 남편만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결혼을 해소할 수 있다. 법정은 그를 징벌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투옥하고 과문을 하여 그가 이혼을 원하는 아내에게 필요한 이혼서류를 전달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충분히 고집스럽다면,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고 그녀를 무기한 묶어 둘 수 있다. 더 나쁜 것은, 그가 아내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도 그녀를 버릴 수 있고 그녀를 미혼도 이혼도 아닌 상태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거나 심지어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동거하며 다른 여자에게서 자녀를 가질 수 있다(이 자녀들은 유대교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버려진 아내는 여전히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으며, 다른 남자와 동거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간음한 여자로서 간주된 것이고 이 결합에서 나온 그녀의 자녀들은 10 세대 동안 혼외자가 된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여자는 아구나(agunah, 사슬에 묶인 여자, 복수형 agunot)라고 불린다. 오늘날 미국에는 약 1,000 명에서 1,500 명의 유대인 여성 아구나가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그 수가 16,000 명에 이를 수 있다. 남편들은 유대교 이혼의 대가로 아내들로부터 수천 달러를 갈취할 수 있다. <sup>35</sup>

이슬람은 이혼에 관해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의 중간 입장을 차지한다. 이슬람에서 결혼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깨져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결속이다. 부부들은 그들의 결혼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가능한 모든 치유책을 추구하도록 권장된다.

이혼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이혼을 선택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슬람은 이혼을 인정하지만 모든 수단으로 이혼을 억제한다. 먼저 인정 측면에 집중해보자. 이슬람은 양쪽 배우자가 부부 관계를 끝낼 권리를 인정한다.

이슬람은 남편에게 탈라끄(talaq, 이혼)의 권리를 준다. 더욱이 이슬람은 유대교와 달리,

아내에게 쿨라(khula') <sup>36</sup>로 알려진 것을 통해 결혼을 파기할 권리를 부여한다.

만약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여 결혼을 파기한다면, 남편은 그녀에게 준 결혼 선물 중 어떤 것도 되찾을 수 없다. 꾸란은 남편들이 아무리 비싸거나 가치 있더라도 결혼 선물을 되찾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 만일 그대들이 배우자의 자리를 (다른) 배우자로서 바꾸길 원한다면, 그리고 그녀들 중의 한 명(기존 배우자)에게 천금을 주었다 했을 때, 그것에서 어떠한 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대들은 커다란 거짓말과 명백한 죄를 짓기 위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인가? (꾸란 4:20) .*

아내가 결혼을 끝내기 선택하는 경우, 그녀는 남편에게 결혼 선물을 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결혼 선물을 돌려주는 것은 아내를 붙잡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그녀가 떠나기로 선택할 때 공정한 보상이다. 꾸란은 무슬림 남성들에게 아내가 결혼을 파기하기로 함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돌려주는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에게 준 선물 중 어떤 것도 되돌려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대들이 그녀들에게 준 것(혼수금)에서 그 어떤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되노라. 그러나 그들(남편과 아내)이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할 때는 예외라. 그들이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지 못할까 그대들이 두렵다면 그녀가 지불하는 배상액에 관하여 그들에게는 죄가 없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경계로서 그대들은 그 경계를 넘지 말라. 하나님의 경계를 넘는 자, 저들은 실로 부당한 자들이다."*

**(꾸란 2:229) .**

또한 한 여자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와서 결혼 파기를 요청하며, 예언자에게 남편의 성격이나 행실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유일한 문제는 그녀가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언자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의 정원(그가 그녀에게 준 결혼선물)을 돌려주겠습니까?" 그녀가 "네" 라고 말하자, 예언자는 남자에게 정원을 주고 결혼 종료를 받아들이도록 지시했다.**(부카리)**

어떤 경우는, 무슬림 아내가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남편의 잔인함, 이유 없는 유기, 남편이 부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등과 같은 강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러한 경우 무슬림 법정은 결혼을 파기시킨다.<sup>37</sup>

요컨대, 이슬람은 무슬림 여성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리를 제공했다: 그녀는 쿨라를 통해 결혼을 끝낼 수 있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무슬림 아내는 완강한 남편에 의해 결코 엽매이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 때문에 7세기 CE의 초기 이슬람 사회에 살았던 유대인 여성들은 무슬림 법정에서 유대인 남편들로부터 이혼 증서를 얻으려고 했다. 랍비들은 이 증서들을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 관행을 끝내기 위해, 랍비들은 무슬림 법정의 매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유대인

여성들에게 새로운 권리와 특권을 부여했다. 기독교 국가에 거주하는 유대인 여성들은 로마 이혼법이 유대교 이혼법보다 나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특권을 받을 수 없었다.<sup>38</sup>

이슬람이 어떻게 이혼을 막는지에 주목해 보자. 예언자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허용된 모든 행위 중에서, 이혼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라" (아부 다우드).

무슬림 남자는 단지 아내를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해서는 안된다. 꾸란은 무슬림 남성들에게 미지근한 감정이나 싫어하는 느낌의 경우에도 아내들에게 친절하도록 가르친다: "그대들은 그녀들과 함께 훌륭한 삶을 살라. 만일 그녀들이 그녀들을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싫어하는 그 무엇에 좋은 것을 많이 두셨을지도 모르는 일이라." (꾸란 4:19)

예언자 무함마드께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었다:

"믿는 남자는 믿는 여자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그녀의 한 가지 특성을 싫어한다면 다른 것으로 기뻐할 것이라." (무슬림)

예언자는 또한 최고의 무슬림은 아내들에게 가장 잘 대하는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완벽한 신앙을 보이는 신자들은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며, 너희 중 가장 훌륭한 자들이란 아내들에게 가장 잘 대하는 자들이라." (티르미디)

그러나 이슬람은 실용적인 종교이며 결혼이 붕괴 직전에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경우, 단순한 친절이나 자제의 조언은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결혼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꾸란은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의 상대방(아내 또는 남편)이 잘못을 저지르는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아내의 나쁜 행동으로 결혼을 위협하는 남편을 위해, 꾸란은 다음 구절들에 자세하게 나와 있듯이 네 가지 유형의 조언을 제공한다:

"교만함이 걱정되는 여성들은 (1) 그대들이 그녀들을 훈계하고, (2) 침대에서 그녀들을 멀리하고, (3) 그녀들을 (가볍게) 때리라. 그리하여 그녀들이 그대들을 따르다면 그녀들에게 불리한 방법을 피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고하시며 위대하신 분이시라. 만일 그대들이 그 둘 사이의 반목이 두렵다면 (4) 그(남편)의 가족 출신의 중재자와 그녀(아내)의 가족 출신의 중재자를 파견하라. 그 둘이 조정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를 원만케 해주실 것이라" (꾸란 4:34-35)

처음 세 가지는 먼저 시도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들이 실패한다면, 관련된 가족들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위의 구절들에 비추어 볼 때, 반항적인 아내를 때리는 것은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극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수단임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남편은 구절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대로 어떤 수단으로든 아내에게 계속 괴롭힘을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남편은 여전히 이 조치를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가족의 도움을 받는 화해의 최종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무슬림 남편들에게 아내가 저지른 공개적 음란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조치들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은 가벼워야 하며 아내가 그만둔다면 남편은 그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들이 노골적인 음란의 죄를 범한 경우 너희는 그들을 침대에 혼자 두거나 가벼운 처벌을 가할 수 있노라. 만약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한다면, 그들에게 괴롭힘의 수단을 찾지 말라." (티르미디)**

더욱이, 이슬람의 예언자는 어떤 구타이든 부당한 구타라 비난한다. 일부 무슬림 아내들은 남편들이 그들을 때렸다고 불평했다. 그 말을 듣고, 예언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아내들을 때리는)은 결코 여러분 중 선한 자들이 아니라" (아부 다우드)**

이 시점에서 예언자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 중 가장 훌륭한 자는 아내에게 가장 친절한 자이며, 나는 그대들 중 자신의 아내에게 가장 친절한 자라." (티르미디)**

예언자는 파티마 빈트 카이스(Fatimah bint Qays)라는 한 무슬림 여성에게 그 남자가 여성을 때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나는 예언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불 자함(Abul Jahm)과 무아위야(Mu'awiah)가 나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예언자는 (조언으로) 말했습니다:**

**무아위야는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이며, 아불 자함은 여자를 때리는 데 익숙하노라. (대신) 우사마 빈 자이드와 결혼하거라." (무슬림)**

탈무드는 훈육을 위한 징계의 목적으로 아내 구타를 허용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sup>39</sup>

남편은 노골적인 음란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아내가 단지 가사를 거부한다 해도 그녀를 때리는 것이 허용된다. 더욱이 그는 가벼운 처벌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는 채찍이나 굶김으로 아내의 고집을 깨는 것이 허용된다.<sup>40</sup>

남편의 나쁜 행동이 결혼과탄의 원인인 아내를 위해, 꾸란은 다음 조언을 제공한다:

" 만일 여성이 자신의 남편에게서 멀어나 외면이 걱정된다면, 양자 사이에 중재를 이루는 것은 그 둘에게 죄가 되지 않노라. 중재는 훌륭한 것이라." (꾸란 4:128)

이 경우는, 아내는 가족의 도움의 유무와 관계없이 남편과 화해를 모색하도록 조언을 받는다. 또한 꾸란이 아내에게 성관계 금지와 때리기라는 두 가지 조치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격차의 이유는 이미 나쁜 행동을 하는 남편의 폭력적인 신체적 반응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폭력적인 신체적 반응은 아내와 결혼 후 모두에게 이익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칠 것이다. 일부 무슬림 학자들은 법정이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에게 이러한 조치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즉, 법정이 먼저 반항적인 남편을 훈계하고, 그 다음 그에게 아내의 침대를 금하고,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구타를 실행한다. 41

요약하자면, 이슬람은 무슬림 기혼 부부들에게 문제와 긴장의 경우 그들의 결혼을 구하기 위한 매우 실행 가능한 조언을 제공한다. 만약 배우자 중 한 명이 부부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면, 다른 배우자는 꾸란에 의해 이 신성한 유대를 구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효과적인 방법을 하도록 조언받는다. 만약 모든 조치가 실패한다면, 이슬람은 부부가 평화롭고 우호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 11 부 - 어머니들 (Mothers)

구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에 대한 친절하고 배려 있는 대우를 명령하고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예를 들어: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레위기 20:9)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에게 기쁨을 가져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머니를 멀리한다." (잠언 15:20)

일부 구절에서는 아버지만 홀로 언급되지만, 예를 들어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인다" (**잠언 13:1**), 와 같이 어머니 홀로는 결코 언급되지 않는다. 더욱이 출산과 수유에서의 그녀의 큰 고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어머니를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없다. 게다가 어머니들은 자녀들로부터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반면 아버지들은 상속받는다. 42

신약성경은 어머니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성경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합당한 좋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 그렇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26)*

더욱이 신약성경은 예수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무례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그가 군중에게 설교하고 있는 동안 그녀가 그를 찾아왔는데, 그는 어머니를 만나러 나가는 데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다. 밖에 서서, 그들은 누군가를 보내 그를 불렀다. 군중이 그의 주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들인가?' 그가 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원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여기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가복음 3:31-35)*

누군가는 예수가 청중들에게 종교적 유대가 가족 유대만큼 중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에게 그러한 절대적 무관심을 보이지 않고도 청중들에게 교훈을 가르칠 수 있었을 것이다. 청중 중 한 사람이 어머니가 자신을 낳고 키우신 역할을 축복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동요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예수가 또 묘사된다.

*"예수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 군중 중 한 여자가 외쳤다, '당신을 낳고 당신에게 젖을 먹인 어머니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27-28)*

처녀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어머니가 신약성경에서 묘사된 것처럼, 예수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부터 그렇게 무례하게 대접받았다면, 일반적인 기독교 어머니는 그녀의 평범한 기독교 아들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되겠는가?

이슬람에서는 어머니에게 부여된 명예, 존경, 존중은 비교할 수 없이 높다. 꾸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친절함의 중요성을 둔다:

*"그대의 주님께서 명하시길 그대들은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 중 하나가 혹은 둘 모두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지 말며 그들을 질타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예로운 말을 하라. 그대는 자비로써 그들에게 순응의 날개를 낮추라. 그리고 말하라. "저의 주님! 부모님이 어린 저를 키워 준 만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꾸란 17:23-24)*

꾸란은 다른 여러 구절에서도 출산과 양육에서의 어머니의 큰 역할에 특별한 강조를 둔다:

*"나(하나님)는 인간에게 부모님과 관련하여 (효도를) 명령하였으니 - 그의 어머니는 허약함에 더한 허약함으로 그를 잉태하였고 그의 젖 떼기는 이 년 동안이라 - "그대는 나에게 감사하고 그대의 부모님께 감사하라" (꾸란 31:14).*

이슬람에서 어머니의 매우 특별한 위치는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해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한 남자가 예언자에게 물었다: '누구를 가장 존중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라.'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남자가 물었다. 예언자가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라.'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남자가 물었다. 예언자가 대답했다: '너의 아버지라.'"(부카리와 무슬림)*

무슬림들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충실히 지키는 몇 안 되는 이슬람 교훈 중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배려 있는 태도이다. 무슬림의 아들과 딸들이 어머니에게 드리는 존경은 매우 모범적인 본보기로 여겨진다. 무슬림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강한 따뜻한 관계와 무슬림 남성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깊은 존경심은 서양인들에게 종종 놀라움을 준다.<sup>43</sup>

## 12 부 - 여성의 상속권 (Female Inheritance)

꾸란과 성경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사망한 친척의 재산에 대한 여성의 상속권에 대한 관점이다. 성경관점은 랍비 엡스타인(Rabbi Epstein)에 의해 간결하게 묘사되었다:

"성경 시대 이래로 이어져 온 지속적이고 단절되지 않은 전통에 따르면, 가정의 여성 구성원들인 아내와 딸들은 가족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보다 원시적인 상속 제도에서는

여성 가족 구성원들이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으며, 노예와 마찬가지로 법적 상속인의  
인격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 모세 율법에 의해 남성 상속인이 없을 경우 딸들이 상속을 허용  
받기는 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내는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sup>44</sup>

왜 가족의 여성 구성원들이 가족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는가? 이에 랍비 엡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그들은 소유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소유되었다." <sup>45</sup>

성경의 상속 규칙은 민수기 27:1-11 에 설명되어 있다.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서 어떤 몫도 받지  
못하는 반면, 남편은 아들들보다 먼저 그녀의 첫 번째 상속인이다. 딸은 남성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상속받을 수 있다. 어머니는 전혀 상속인이 아닌 반면 아버지는  
상속인이다. 과부들과 딸들은, 남성 자녀들이 남아있는 경우, 남성 상속인들의 자비에 생계를  
의존했다. 그것이 과부들과 고아 소녀들이 유대 사회의 가장 빈곤한 구성원 중에 하나인  
이유이다.

기독교는 오랫동안 같은 길을 따랐다. 기독교 세계의 교회법과 민법 모두에서 아버지의 세습  
재산이 형제들과 함께 딸들에게 나눠지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아내들은 어떤 상속권도  
박탈당했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들은 지난 세기 말까지 남아있었다. <sup>46</sup>

이슬람 이전의 이교도 아랍인들 사이에서도, 상속권은 남성 친척들에게만 한정되었다.

꾸란은 이러한 모든 불공정한 관습을 폐지하고 모든 여성 친척들에게 상속 지분을 주었다:

*"남성에게는 부모님 및 가까운 친척들이 남긴 것에 대한 몫이 있으며, 여성에게도 적든 많은  
부모님 및 가까운 친척들이 남긴 것에 대한 몫이 있으니, 지정된 몫이라."* (꾸란 4:7)

무슬림 어머니, 아내, 딸, 자매들은 유럽이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기 1,300 년 전에 이미  
상속권을 받았다.

상속의 분할은 엄청난 양의 세부사항을 가진 방대한 주제이다(**4:7,11,12,176**). 일반적인  
규칙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동등한 몫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의 몫이 남성의 절반이라는  
것이다. 이 일반적인 규칙을 남녀에 관한 다른 법률과 분리하여 보면 불공정해 보일 수 있다. 이  
규칙의 근거를 이해하려면, 이슬람에서 남성의 재정적 의무가 여성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아내의 재산" 섹션 참조).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선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선물은 그녀의 독점적 재산이 되며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유지된다.

신부는 신랑에게 어떤 선물도 줄 의무가 없다. 더불어 무슬림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의 부양을  
책임진다. 반면에 아내는 이 점에서 그를 도울 의무가 없다. 그녀의 재산과 수입은 그녀만을  
위한 것이며 그녀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제공 것 외에는 그녀만의 용도로 사용된다. 게다가

이슬람은 가족 생활을 강력히 옹호한다는 것을 인식 해야 한다. 그것은 청년들의 결혼을 강력히 권장하고, 이혼을 막으며, 독신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이슬람 사회에서 가족 생활은 일반적이며 독신 생활은 예외적이다.

즉, 이슬람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결혼 적령기 여성과 남성은 이미 결혼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무슬림 남성들이 무슬림 여성들보다 더 큰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상속 규칙은 이러한 불균형을 보완하여 사회 모든 성별이 계급차별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슬림 여성의 재정적 권리와 의무를 간단히 비교한 후, 한 영국 무슬림 여성은 이슬람이 여성을 공정할 뿐만 아니라 관대하게 대했다고 결론지었다. <sup>47</sup>

## 13 부- 과부들의 곤경 (Plight of Widows)

구약이 과부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들은 유대 인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에 있었다. 여성의 남편이 사망하면 그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남성 친척들이 그녀를 부양해야 했다. 그러나 과부들에게는 이 부양이 안정되게 실현되는 경우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하여 살기도 했다. 따라서 과부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계층

중에 있었고 과부가 되는 것은 큰 굴욕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사야 54:4**). 그러나 성경 전통에서 과부의 곤경은 남편의 재산에서 배제뿐만 아니라 확대되기도 했다. **창세기 38**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과부는 남편의 형제가 이미 결혼했다라도 그와 결혼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가 죽은 형제를 위해 자손을 남기며 형제의 가문을 지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네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고 처남으로서 그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 네 형제를 위한 자손을 낳으라.'(창세기 38:8)*

이러한 결혼에서 **과부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과부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며, 그녀의 쓸모는 **남편의 혈통을 이어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성경적 율법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sup>48</sup>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는 과부는 남편의 형제에게 넘겨진다. 만약 그 형제가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면, 그녀는 그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망한 남편의 형제가 결혼을 거부할 경우에만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고, 그때서야 원하는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과부가 자유가 얻는 대가로 시동생에게 협박이나 금전적 요구를 받는 일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이슬람 이전의 이교도 아랍사회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존재했다. 과부는 남편의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남성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보통 고인의 **다른 아내에게서 태어난 장남과 결혼했다**.

꾸란은 이러한 굴욕적인 관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완전히 폐지하였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버지가 결혼한 여성(새어머니)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은 예외라. 실로 그것은 추악한 행위이며 혐오스러운 것이자 사악한 길이라."(꾸란 4:22)*

성경적 전통에서는 과부와 이혼한 여성은 심하게 멸시되었기 때문에, 대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녀, 또는 매춘부와 결혼할 수 없었다.

*"그(대제사장)가 아내로 맞이할 여자는 처녀여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 또는 매춘부로 더럽혀진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안에서 자손을 더럽히지 못하리라."(레위기 21:13-15)*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도 **코헨 계급**(성전 시대의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은 이혼녀나 과부, 매춘부와 결혼할 수 없다.<sup>49</sup> 또한 유대 율법에서는 세 번 과부가 되었고, 그 세 명의 남편이 모두 자연사한 여성은 '치명적인 존재(fatal)'로 간주되어 다시 결혼하는 것이 금지된다.<sup>50</sup>

반면, 꾸란은 계급 제도나 '불길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한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를 가진다.

꾸란에서는 이혼이나 과부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낙인도 부여하지 않는다.

"그대들이 아내와 이혼하였고 그리하여 그녀들이 자신의 기간에 도달하였다면 그대들은 합당한 방식으로 그녀들과 재결합하거나 합당한 방식으로 그녀들을 놓아주라. 그대들은 적의적으로 행동하여 해약을 끼칠 목적으로 그녀들과 재결합하지 말라. 그렇게 행동하는 자 있다면 진실로 그는 자신을 부당히 다룬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징표들을 조롱거리로 삼지 말라"(꾸란 2:231).

"그대들 중에 숨을 거둔 자가 아내를 남길 때 그녀들은 사 개월 십 일을 참고 기다려야 하노라. 그리하여 그녀들이 자신의 기간에 도달하였다면 그녀들이 합당한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처신한 것에 관하여 그대들에게는 죄가 없노라."(꾸란 2:234)

"그대들 중에 숨을 거둔 자가 아내를 남길 때는 그의 아내를 위한 유언이 의무라: (아내를 자신의 집에서) 내쫓음 없이 한 해가 될 때까지의 편의(보장이 그녀를 위한 유언)이라. 그러나 그녀들이 (집에서) 나간다면 그녀들이 합당한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한 일에 관하여 그대들에게는 죄가 없노라."(꾸란 2:240)

#### 14 부 - 일부다처제 (Polygamy)

이제 일부다처제라는 중요한 질문을 다뤄보자. 일부다처제는 많은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는 매우 오래된 관습이다. 성경은 일부다처제를 비난하지 않았다. 반대로, 구약성경과 랍비 저술들은 일부다처제의 합법성을 자주 증명한다. 솔로몬 왕은 700 명의 아내와 300 명의 첩을 가졌다고 한다 (열왕기상 11:3). 또한 다윗 왕은 많은 아내와 첩을 가졌다고 한다 (사무엘하 5:13). 구약에는 남편의 재산을 여러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 (신명기 22:7). 일부다처제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아내의 자매를 경쟁 아내로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레위기 18:18). 탈무드는 최대 네 명의 아내를 권장한다. 유럽 유대인들은 16 세기까지 일부다처제를 계속 실천했다. 동양유대인들은 민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일부다처제를 이스라엘에 도착 정기적으로 실행했다. 민법상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경우 민법을 초월하는 종교법상으로는 허용된다. <sup>52</sup>

신약성경은 어떠한가? 유진 힐만(Father Eugene Hillman) 신부는 그의 통찰력 있는 서적 『재고된 일부다처제(Polygamy Reconsidered)』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결혼이 일부다처제여야 한다거나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명령은

였다. "더욱이 예수는 그의 사회의 유대인들이 실행하던 일부다처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힐만 신부는 로마의 교회가 그리스-로마 문화( 법적으로 한명의 아내를 규정하면 첩과 매춘부를 허용했던 문화)에 따르기 위해 일부다처제를 금지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인용한다:

*"이제 참으로 우리 시대에는, 로마 관습에 맞춰,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sup>54</sup>

아프리카 교회들과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 종종 유럽 형제들에게 일부다처제에 대한 교회의 금지는 문화적 전통이지 진정한 기독교 훈계가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꾸란도 일부다처제를 허용했지만, 제한 없이는 아니었다:

*" 만일 그대들이 고아들에 관하여 공정을 기하지 못할까 두렵다면 그대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들과 둘씩, 셋씩, 혹은 넷씩 결혼하라.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공평하지 못할까 두렵다면 한 명의 여성"(꾸란 4:3)*

성경과 달리, 꾸란은 아내의 수를 4 명으로 제한하고 , 아내들을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다. 꾸란은 신자들에게 일부다처제를 실천하거나 권장되거나 일부다처제를 이상으로 여겨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꾸란은 일부다처제를 "용인"하거나 "허용"했을 뿐이며,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런데 왜? 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일부다처제에 대한 불가피한 사회적, 도덕적 이유가 있는 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의 꾸란 구절이 나타내듯이, 이슬람에서 일부다처제 문제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과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다. 모든 장소와 시대에 적합한 범세계적 종교로서 이슬람은 이러한 필수적 의무를 무시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수적으로 우세하다. 미국에서는 적어도 여성이 남성보다 800 만 명 더 많다. 기니와 같은 나라에서는 남성 100 명당 여성이 122 명이다. 탄자니아에서는 여성 100 명당 남성이 95.1 명이다.<sup>55</sup> 사회는 이러한 불균형한 성비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신을 제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여아 살해를 선호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의 일부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유일한 출구는 사회가 모든 종류의 성적 방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매춘, 혼외 성관계, 동성애 등. 오늘날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회 같은 다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방식이 일부다처제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제도로 허용한다. 서구에서 종종 오해되는 점은 다른 문화권의 여성들은 반드시 일부다처제를 반드시 굴욕의 표시 또는 타락의 징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젊은 아프리카 신부들은,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다른 종교이든, 이미 책임감 있는 남편임이 증명된 기혼 남자와 결혼하기를 선호한다.

많은 아프리카 아내들은 외롭지 않도록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얻도록 촉구한다. <sup>56</sup> 나이지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서 실시된 15 세에서 59 세 사이의 6 천 명 이상의 여성에 대한 조사는 이 여성들 중 60%가 남편이 다른 아내를 맞이한다면 기뻐할 것이라고 보여주었다. 단지 23%만이 다른 아내와 나누는 것에 분노를 표현했다. 케냐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76%의 여성들이 일부다처제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케냐 농촌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27 명의 여성 중 25 명이 일부다처제가 일부일처제보다 낫다고 여겼다. 이 여성들은 공동 부인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일부다처제가 행복하고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sup>57</sup>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매우 존중받는 제도여서 일부 개신교 교회들은 그것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케냐의 한 주교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일부일처제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표현을 위한 이상적일 수 있지만, 교회는 특정 문화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일부다처제가 기독교에 상충한다는 믿음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sup>58</sup>

영국 데이비드 기타리(Reverend David Gitari) 성공회 목사는 아프리카 일부다처제에 대한 신중한 연구 결과, 이상적으로 시행될 경우 일부다처제가 버려진 아내들과 자녀들에 관점에서 이혼과 재혼보다 더 기독교적이라고 결론지었다. <sup>59</sup> 나는 개인적으로 서구에서 수년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다처제에 대해 어떤 반대도 하지 않는 고학력 아프리카 여성들을 알고 있다. 미국에 사는 그들 중 한 명은 미국에 사는데 남편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기위해 두 번째 아내를 얻으라고 엄숙히 권고한다.

불균형한 성비의 문제는 전쟁시기에 특히 더 심각 해진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전쟁 손실 후 고도로 불균형한 성비로 고통받곤 했다. 사실 상당히 높은 지위를 누렸던 이 부족들의 여성들은 음란한 활동에 빠지는 것에 대한 최선의 보호로서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였다. 유럽 정착민들은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 인디언 일부다처제를 '비문명적'이라고 <sup>60</sup> 비난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는 남성보다 730 만 명의 여성이 더 많았다 (그들 중 330 만 명은 과부였다).

그 연령대에 20 세에서 30 세 사이의 남성 100 명당 여성은 167 명이었다. 이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전혀 없는 비참함과 어려움의 속에서 동반자이자 가정의 생계를 부양할 남성을 필요로 했다. 승리한 연합군의 군인들은 이 여성들의 취약성을 이용했다. 많은 젊은 여성들과 과부들은 점령군 병사들과 관계를 가졌고, 많은 미국과 영국 군인들은 담배, 초콜릿, 빵으로 케락에 대가를 지불했다. 아이들은 이 낮은 사람들이 가져온 선물에 기뻐했다. 한 10살 소년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그러한 선물에 대해 들은 후 어머니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영국인'을 간절히 원했다.62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양심에 물어야 한다: 여자에게 무엇이 더 존엄한가?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인디언 방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존중받는 두 번째 아내인가, 아니면 '문명화된' 연합군의 방식처럼 사실상의 매춘부인가? 다시 말해, 여자에게 무엇이 더 존엄한가, 꾸란의 처방인가 아니면 로마 제국의 문화에 기반한 신학인가?

1948년 뮌헨에서 열린 국제 청년 회의에서 독일의 고도로 불균형한 성비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어떤 해결책에도 합의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참가자들은 일부다처제를 제안했다. 모임의 초기 반응은 충격과 혐오의 혼합이었다. 그러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참가자들은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해결책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일부다처제는 회의 최종 권고사항에 포함되었다.63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대량 파괴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교회들은 조만간 유일한 탈출구로서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여야만 할 수도 있다. 힐만 신부는 이 사실을 주의 깊게 인식했다:

*"이러한 집단학살 기술들(핵, 생물학적, 화학적...)이 성별 간에 극단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여 일부다처 결혼이 생존의 필수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 그때 이전의 관습과는 달리, 일부다처제를 옹호하는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경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결혼 개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거운 이유들과 성경 구절들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이다."* 64

오늘날까지 일부 현대 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부다처제가 여전히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여기지고 있다. 꾸란이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면서 언급한 공동체적 의무는 아프리카보다 일부 서구 사회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에서 흑인 공동체에는 심각한 성별 위기가 있다. 젊은 흑인 남성 20명 중 1명이 21세가 되기 전에 사망할 수 있다.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에게는 살인이 주요 사망 원인이다. 65

게다가 많은 젊은 흑인 남성들이 실직 상태이거나 감옥에 있거나 마약 중독 상태이다.66 그 결과, 40세의 흑인 여성 4명 중 1명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반면, 백인 여성의 경우 10명

중 1 명은 결혼하지 않았다. 67

더욱이 많은 젊은 흑인 여성들은 20 세 이전에 미혼모가 되어 부양자가 필요함을 발견한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의 최종 결과는 점점 더 많은 수의 흑인 여성들이 '남자 공유'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68

즉, 이 불행한 미혼 흑인 여성들 중 많은 수가 기혼 남성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 아내들은 종종 다른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에서 남자 공유 위기에 대한 일부 관찰자들은 미국 사회 전반에서 더 포괄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흑인 남성 부족에 대한 임시 답으로 합의적 일부다처제를 강력히 권장한다. 69

합의적 일부다처제란 공동체에 의해 승인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한 일부다처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남성공유는 아내와 공동체 모두에게 해롭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의 남성공유 문제는 1993년 1월 27일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교에서 열린 패널 토론회의 주제였다. 70 일부 연사들은 위기에 대한 잠재적 치료책으로 일부다처제를 권장했다. 그들은 정부에서 매춘을 허용하는 사회에서는 특히 일부다처제를 법으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청중 중 한 여성의 논평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일부다처제가 책임감 있게 실천되는 아프리카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하자 열렬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로마 가톨릭 유산의 미국 인류학자인 필립 킬브라이드(Philip Kilbride)는 그의 도발적인 책 『우리 시대를 위한 복혼(Plural marriage for our time)』에서 미국 사회 전반의 일부 병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다처제를 제안한다. 그는 많은 사례로 이혼 대신 일부다처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많은 이혼이 미국 사회에서 만연히 벌어지는 혼외 관계에 의해 야기된다고 말한다.

킬브라이드에 따르면, 일부다처 결혼에서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좋다한다. "가족 증대가 이혼이나 결별만을 선택지고 보기보다 가족 확장으로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더욱이 그는 남성 부족에 직면한 노년 여성들과 남성공유에 관여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같은 다른 집단들도 일부다처제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71

1987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학생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인식되는 남성 결혼 후보자의 부족에 대응하여 법이 남성들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물었다. 설문조사를 받은 학생들 거의 모두가 그 아이디어를 승인했다. 한 여학생은 심지어 일부다처 결혼이 일부일처 결합보다 더 큰 자유를 주면서 그녀의 정서적이고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72 사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에서 여전히 일부다처제를 실행하는 소수의 근본주의 몰몬 여성들도 같은 논리를 사용한다. 그들은 일부다처제가 아내들이 서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돕기 때문에 여성이 경력과 자녀 모두를

가질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73

이슬람에서 일부다처제는 상호 동의가 전제라는 점을 추가되어야 한다. 누구도 여자에게 기혼 남자와 결혼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게다가 아내는 남편이 두 번째 아내로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할 권리가 있다. 반면에 성경은 때때로 강제적 일부다처제에 의지한다. 자녀 없는 과부는 남편의 형제가 이미 결혼했다라도 그녀의 동의와 상관없이 그와 결혼해야 한다 ("과부들의 곤경" 섹션 참조) (**창세기 38:8-10**).

오늘날 많은 무슬림 사회에서 일부다처제의 드물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양성남녀 수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무슬림 세계에서 일부다처 결혼의 비율이 서구에서 혼외 관계의 비율보다 훨씬 적다. 다시 말해, 오늘날 무슬림 세계의 남성들은 서구 세계의 남성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일부다처제를 지킨다.

저명한 기독교 전도사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은 이 사실을 인정했다:

*"기독교는 일부다처제 문제에서 타협할 수 없다. 만약 현대 기독교가 이것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 이슬람은 사회적 병폐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했고 인간 본성에 일정한 자유를 허용했지만 오직 엄격하게 정의된 법의 틀 안에서 만이다. 기독교 국가들은 일부다처제를 크게 과시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다처제를 행한다. 서구 사회에서 정부가 가진 첩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점에서 이슬람은 근본적으로 정직한 종교이며, 필요하다면 무슬림이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도록 허용하지만, 공동체의 청렴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비밀 연애 관계를 엄격히 금지한다." 75*

오늘날 세계의 많은 무슬림 및 비무슬림 국가들이 일부다처제를 불법화했다는 것은 흥미롭다. 첫 번째 아내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더라도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반면에, 아내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아내를 속이는 것은 법에 관한 한 완전히 합법적이다! 이 모순 뒤의 법적 지혜는 무엇인가? 법은 속임수에 보상하고 정직을 처벌하도록 설계된 것인가? 그것은 우리 현대 '문명화된' 세계의 해결할 수 없는 역설 중 하나이다.

## 15 부 - 베일 (The Veil)

**마**지막으로, 서구에서 여성 억압과 복종의 가장 큰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 즉 베일 또는 머리카락에 대해 조명해보자. 유대-기독교 전통에는 베일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를 바로잡아보자. 예시바 대학교(Yeshiva University)의 성경 문학 교수인 랍비 메나헴 M. 브레이어(Rabbi Dr. Menachem M. Brayer)에 따르면, 그의 책 『랍비

문학에서의 유대인 여성(The Jewish woman in Rabbinic literature)』에서, 유대인 여성들이 머리 가림을 하고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이 관습이었으며, 때로는 심지어 한 쪽 눈만 내놓고 전체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76 그는 유명한 고대 랍비들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인용한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카락을 보이게 하는 남자는 저주 받을지어다... 자기 치장을 위해 머리카락을 노출하는 여자는 가난을 가져온다."

랍비 법은 기혼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축복이나 기도를 낭송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는 것이 "나체" 로 여겨졌다. 77 브레이어 박사는 또한 "탄나이틱(Tannaitic) 시대 동안 유대인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못한 것은 그녀의 정숙함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졌다.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그녀는 이 위반에 대해 400 주짐(zuzim)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었다"고 언급한다. 브레이어 박사는 또한 유대인 여성의 베일이 항상 정숙의 표시로 여겨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때때로 베일은 정숙함보다는 구별과 사치의 상태를 상징했다. 베일은 고귀한 여성들의 존엄성과 우월성을 표현했다. 그것은 또한 남편의 신성한 소유물로서 다른 이의 여성에게 접근 불가능성을 나타냈다. 78

베일은 여성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다. 하류 계층의 여성들은 종종 더 높은 지위의 인상을 주기 위해 베일을 착용하곤 했다. 베일이 고귀함의 표시였다는 사실 옛 유대 사회에서 매춘부들이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이다. 그러나 매춘부들은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특별한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곤 했다. 79 유럽의 유대인 여성들은 19 세기까지 베일을 계속 착용했으나, 그때 그들의 삶이 주변의 세속 문화와 더 뒤섞이게 되면서 베일 대신 다른 방식의 머리 덮개를 사용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부 유대인 여성들은 전통적인 베일을 가발로 대체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독실한 유대 여성들은 회당에서만 머리를 덮는다. 80 일부 하시 딕(Hasidic) 종파와 같은 집단에서는 여전히 가발을 사용한다. 81

기독교 전통은 어떠한가? 가톨릭 수녀들이 수백 년 동안 머리를 가려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성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베일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진술을 했다:

*"이제 나는 너희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남자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 그것은 마치 그녀의 머리가 깎인 것과 같다. 만약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면, 그녀는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 그리고 만약 여자가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깎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면, 그녀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 남자는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천사들 때문에, 여자는 머리 위에 남성을 위한 권위의 표시를 가져야 한다."

**(고린도전서 11:3-10)**

여성에게 베일을 씌우는 성 바울의 근거는 베일이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인 남자의 권위의 표시를 나타낸다는 것이며, 남자로부터 그리고 남자를 위해 창조된 여자 위에 있다는 것이다. 성 터툴리안(St. Tertullian)은 그의 유명한 논문 『처녀들의 베일 착용에 관하여(On The Veiling Of Virgins)』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젊은 여성들이여, 너희는 거리에서 베일을 착용하므로, 교회에서도 착용해야 한다, 너희는 낮선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그것을 착용하므로, 너희 형제들 사이에서도 착용해야 한다..."

오늘날 카톨릭 교회의 교회법 중에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법이 있다. 82 아미시(Amish)와 메노나이트(Mennonites)와 같은 일부 기독교 교파들은 현재까지도 여성들에게 베일을 착용시킨다. 교회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베일의 이유는 "머리 가림은 여자가 남자와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상징이다" 라는 것인데, 이는 성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소개한 것과 같은 논리이다. 83

위의 모든 증거로부터, 이슬람이 머리 가림을 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슬람은 그것을 승인했다. 꾸란은 믿는 남자와 여자들에게 시선을 낮추고 정숙함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그 다음 믿는 여성들에게 목과 가슴을 가리도록 머리 가림을 확장할 것을 촉구한다:

"그대(무함마드)는 믿는 남성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그들의 순결을 지키도록 하라...그리고 그대(무함마드)는 믿는 여성들에게 말하여 그녀들이 시선을 낮추고 그녀들의 순결을 지키도록 하며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제외라. 그리고 그녀들의 (머리를) 가리는 천을 그녀들의 (상의) 옷깃 위에 치도록 하라..."

**(꾸란 24:30-31)**

꾸란은 베일이 정숙함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정숙함이 중요한가? 꾸란은 여전히 분명하다:

"선지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그대의 딸들과 믿는 자들의 여성들에게 말하여 그녀들의 길게 내리는 옷을 그녀들 (몸) 위에 걸쳐 입도록 하라. 이것이, 그녀들이 알려지게 되어 해를 입지 않음에 더 가까운 것이라" (꾸란 33:59) .

이것이 핵심이다, 정숙함은 여성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또는 간단히, 정숙함은 보호이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베일의 유일한 목적은 보호이다. 기독교 전통의 베일과 달리, 이슬람의 베일은 여자 위에 남자의 권위의 표시가 아니며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표시도 아니다. 유대교 전통의 베일과 달리, 이슬람의 베일은 일부 럭셔리한 기혼 여성들의 사치의 구별의 표시가 아니다. 이슬람의 베일은 모든 여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숙함의 표시일 뿐이다. 이슬람 철학은 항상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사실, 꾸란은 여성의 몸과 여성의 명성을 보호하는 것에 매우 신경 쓰고 있어서 감히 여자를 거짓으로 음란하게 몰아세우면 엄하게 처벌받는다:

*"그리고 정숙한 여자들에게 간통의 혐의를 제기하면서도 네 명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팔십 대의 태형을 처하라; 그 후 결코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말라: 저들은 실로 거역자들이다." (꾸란 24:4)*

이 엄격한 꾸란의 태도와 성경에서 강간에 대한 극히 관대한 처벌과 비교해보라:

*"만약 남자가 우연히 결혼 서약을 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녀를 강간하고 발각되면, 그는 소녀의 아버지에게 은 50 세겔을 지불하라. 그는 소녀와 결혼해야 하는데, 그가 그녀를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는 동안 그녀와 이혼할 수 없다." (신명기 22:28-30)*

여기서 간단한 질문을 해야 한다, 누가 실제로 처벌받는가? 강간에 대해 벌금만 낸 남자인가, 아니면 그녀를 강간한 남자와 결혼해 그가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살아야 하는 소녀인가? 또한 물어야 할 다른 질문은 이것이다: 어느 것이 여성을 더 보호하는가, 꾸란의 엄격한 태도인가 아니면 성경의 느슨한 태도인가?

일부 사람들, 특히 서구에서는, 보호를 위한 정숙함을 비웃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주장은 최선의 보호는 교육의 확산, 문명화된 행동, 그리고 자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말할 것이다: 좋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만약 '문명' 이 충분한 보호라면, 왜 북미의 여성들은 어두운 거리에서 - 또는 심지어 텅 빈 주차장을 가로질러서도 - 혼자 걷기를 감히 하지 못하는가? 만약 교육이 해결책이라면, 왜 퀸즈(Queen's)와 같은 존경받는 대학교가 캠퍼스의 여학생들을 위한 '귀가 동행 서비스' 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 자제가 답이라면, 왜 직장에서의 성희롱 사건들이 매일 뉴스 미디어에 보도되는가? 지난 몇 년간 성희롱으로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해군 장교들, 관리자들, 대학

교수들, 상원의원들, 대법원 판사들, 그리고 미국 대통령!

퀸즈 대학교의 여학장실에서 발행한 팸플릿에 실린 다음 통계를 읽고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 캐나다에서 여성 1 명이 6 분마다 한 번씩 성폭행을 당한다,
- 캐나다 여성 3 명 중 1 명은 일생 중 어느 시점에 성폭행을 당할 것이다,
- 여성 4 명 중 1 명은 일생에서 강간 또는 강간 미수의 위협에 처한다,
- 여성 8 명 중 1 명은 대학 재학중 성폭행을 당할 것이다,
- 한 연구는 캐나다 대학생 연령 남성 중 60%가 자신이 걸리지 않는다면 성폭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사회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숙함의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남자와 여자 모두의 복장, 말투, 태도에서의 정숙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암울한 통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며, 불행히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오직 여성들뿐일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고통받지만 K. 지브란(K. Gibran)이 말했듯이: "... 타격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세는 사람과 같지 않다." <sup>84</sup>

따라서 젊은 여성들을 정숙한 옷차림 때문에 학교에서 추방하는 프랑스와 같은 사회는, 결국,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세계의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가톨릭 수녀들이 역사적으로 남자의 권위를 위해 착용을 시작한 '성스러움'의 상징으로 존경받는 바로 그 머리 스카프가, 무슬림 여성들이 자신의 보호를 위해 착용할 때는 '억압'의 상징으로 비난받는다는 것이다.

## 16 부 – 에필로그

**이** 연구의 초기 버전을 읽은 모든 비무슬림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한 가지 질문이 있다: 오늘날 무슬림 세계의 무슬림 여성들은 여기에 설명된 이 고귀한 대우들을 받고 있는가? 대답은, 불행하게도, 아니오이다.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어떤 논의에서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에게 전체적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대답을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우선 분명히 할 것은 이것이다: 무슬림 사회들은 지역, 문화, 전통에 따라 광범위하게 다르다. 따라서 '무슬림은 이렇다' 라는 식의 일반화는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다.". 오늘날

무슬림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태도는 매우 다양하며, 이는 사회마다 다르고 각 사회 내에서도 다르다. 그러나 일정한 공통점은 찾을 수 있다. 거의 모든 무슬림 사회가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는 이슬람 본래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면이 있다.". 이러한 편차는 대부분 두 가지 반대 방향 중 하나에 속한다. 첫 번째 방향은 더 보수적이고, 제한적이며, 전통 중심적이고, 두 번째는 보다 자유주의적이고 서구 지향적이다.

첫 번째 방향으로 이탈한 사회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관습과 전통에 따라 여성을 대우한다. 이러한 전통은 보통 이슬람이 여성들에게 부여한 많은 권리를 빼앗는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과 매우 다른 기준으로 대우받는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의 삶 전반에 만연해 있다: 출생 시 남아보다 덜 환영받고, 학교에 갈 가능성이 낮았으며, 가족 유산의 몫을 박탈당할 수 있고, 남성 가족 구성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허용되는 반면 여성은 부도덕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남성 가족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그녀가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녀는 가족 문제나 지역사회 이익에 대해 거의 발언권이 없으며, 자신의 재산과 결혼 선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로서 그녀 자신도 지역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아들을 낳기를 선호할 것이다.

두번째 방향에선, 서구 문화와 생활 방식에 휩쓸린 무슬림 사회들(또는 일부 사회 내의 특정 계층들)도 있다. 이러한 사회들은 서구로부터 온 것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보통 서구 문명의 최악의 열매를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전형적인 "현대" 여성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신체적 아름다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종종 자신의 몸의 형태, 크기, 체중을 집착한다. 그녀는 정신보다 몸을, 지성보다 매력을 더 중요시하게 된다. 매혹적이고, 끌어당기고, 흥분시키는 그녀의 능력은 교육적 성취, 지적 추구, 사회 사업보다 사회에서 더 가치 있게 평가된다. 그녀의 가방에서 꾸란 사본을 찾는 것은 기대되지 않는데, 그것은 그녀가 어디를 가든 동행하는 가방 안에는 화장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내면세계와 정신적 가치는 걸모습에만 열광하는 사회에서 외면당한다. 그래서 그녀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대신, 타인의 시선 속 '이상적 여성상'을 충족시키려 애쓰며 삶을 보낸다."

왜 무슬림 사회들은 이슬람의 이상으로부터 이탈했을까? 답은 찾기 힘들다. 무슬림 여성들이 꾸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 연구범위를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슬림 사회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삶의 많은 측면에서 이슬람 교리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무슬림들이 믿어야 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광범위한 간극이 있다. 이 격차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으며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이 계속 확대되는 격차는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 무슬림 세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적 폭정과 분열, 경제적 후진성, 사회적 불의, 과학적 파산, 지적 정체 등.

오늘날 무슬림 세계에서 여성의 비이슬람적 지위는 단지 더 깊은 병폐의 증상일 뿐이다. 무슬림 여성의 현재 지위에 대한 어떤 개혁도 무슬림 사회의 전체 생활 방식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 할 것이다. 무슬림 세계는 이슬람의 이상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르네상스가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오늘날 무슬림 여성의 열악한 지위가 이슬람 때문이라는 개념은 완전한 오해이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의 문제는 이슬람에 대한 지나친 애착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 깊은 이슬람과의 단절이 맺은 결과이다.

또한 이 비교 연구의 목적이 어떤 의미에서도 유대교나 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강조해야 한다. 20 세기 후반을 사는 우리 눈에는 유대-기독교 전통 속 여성의 위치가 끔찍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시대의 렌즈로 봐야 공정하다. 유대-기독교 전통의 여성관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전통이 생겨난 시대적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랍비들과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성을 바라본 시선은 분명 그들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물들어 있었다. 성경 또한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다. 여러 시대, 여러 저자들의 손을 거쳤고, 그들 각자는 자신이 살던 세상의 문화와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구약성서의 간통법은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극도로 여성에게 불공정해 보여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시 유대 부족들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맥락이 보인다. 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매우 중시했고, 주변 부족들과 명확히 구별되길 원했다. 이런 목표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혼 여성의 외도뿐이었다. 이 배경을 알면 그러한 편향의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해가 곧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여성 비하 발언도 그들이 살던 그리스-로마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혐오 문화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 결국 유대-기독교 전통을 평가할 때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판단이 아니다.

사실, 유대-기독교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이슬람이 세계사와 인류 문명에 기여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중요하다. 유대-기독교 전통은 그것이 존재했던 환경, 조건,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형성되었다. 서기 7 세기까지, 이 영향은 모세와 예수에게 계시된 원래의 신성한 메시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시켰다. 7 세기 유대-기독교 세계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가 단지 한 가지 예이다.

따라서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이끌 새로운 신성한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했다. 꾸란은 새로운 메신저의 사명을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해방시키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들은 사도이자 선지자이며 문맹인 자(무함마드)를 따르며 자신들의 타우라(토라)와 인질(복음)에 그(무함마드)가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노라. 그는 그들에게 선행을 명하고 악행을 금하며, 좋고 깨끗한 것을 허락하며 추하고 더러운 것을 금하고, 그들에게 씌워진 무거운 짐과 멍에를 제거하노라. 그러니 그를 믿고 공경하고 도우며 그에게 내려진 광명을*

*따르는 자, 이들이야말로 성공한 자들이다."*

**(꾸란 7:157)**

따라서 이슬람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경쟁 전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이전에 계시되었던 신성한 메시지들의 완성, 완결, 완벽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끝에서, 나는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공하고 싶다. 너무 많은 무슬림 여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기본적인 이슬람적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과거의 실수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호의가 아니라, 모든 무슬림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는 꾸란의 지침과 이슬람 예언자의 가르침에 기초한 무슬림 여성의 권리 현장을 발명해야 한다. 이 현장은 무슬림 여성들에게 그들의 창조주가 부여한 모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그런 다음 현장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현장은 오래 전에 나왔어야 했지만,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 전 세계 무슬림들이 그들의 어머니, 아내, 자매, 딸들의 완전한 이슬람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장할까?

더 나아가, 우리는 과거와 마주하고,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이 이슬람의 교리를 위반할 때마다 그것을 단호히 거부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꾸란은 조상들의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에 대해 이교도 아랍인들을 심하게 비판하지 않았는가? 반면에, 우리는 서구나 다른 문화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과 학습은 귀중한 경험이다. 꾸란은 이 상호작용을 창조적 목적 중 하나로 간결하게 다루고있다:

*"사람들이여! 실로 나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통해 그대들을 창조하였고, 서로를 알 수 있도록 그대들을 민족과 부족으로 두었노라." (꾸란 49:13)*

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자존감의 결여의 확실한 징표이다. 이 마지막 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 또는 기타 비무슬림 독자들에게 바친다. 여성의 지위에 혁명을 일으킨 종교가 여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비방 받는 이유가 이해할 수 없다. 이슬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잘못된 신화 중 하나이다. 이 신화는 끊임없는 선정적인 책, 기사, 미디어 이미지,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로 쏟아내면서 퍼지고 있다. 이러한 끊임없이 오도하는 이미지들의 불가피한 결과는 이슬람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오해와 두려움이었다. 세계 미디어에서 이슬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는 우리가 차별, 편견, 오해의 흔적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살기위해서 끝나야 한다.

비무슬림들은 무슬림들의 신념과 관행, 그리고 무슬림의 행동들이 . 반드시 이슬람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무슬림 세계에서 여성의 지위를 "이슬람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서양에서 여성의 지위를 "유대-기독교적"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슬림들과 비무슬림들은 모든 오해, 의심,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소통과 대화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인류 공동체의 평화로운 미래는 이러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

이슬람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현대 세계가 이제야 인식한 수많은 권리를 부여한 종교로 보아야 한다. 이슬람은 여전히 오늘날의 여성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의 모든 측면과 모든 단계에서의 존엄성, 존중, 보호, 그리고 그녀의 모든 영적, 지적, 신체적, 감정적 필요의 인식, 균형, 충족을 위한 수단.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슬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여성이 남성 개종자보다 4 배 더 많다. <sup>85</sup>

이슬람은 도덕적 지도와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오늘날 세계에 제공한 것이 많고 앞으로 제공할 것도 많다. 허먼 아일츠(Herman Eilts) 대사는 1985년 6월 24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앞 증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는 약 10억 명입니다. 그것은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똑같이 인상적인 것은 이슬람이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일신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슬람에는 무언가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에는 무언가 옳은 것이 있으며 이제 그 진실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연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각주

1. The Globe and Mail, 1994년 10월 4일.
2. Leonard J. Swidler, 『유대교의 여성: 형성기 유대교에서 여성의 지위』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6) p. 115.
3. Thana Kendath, "정통과 청년 시절의 추억" in Susannah Heschel, ed. 『유대교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 (New York: Schocken Books, 1983), pp. 96-97.
4. Swidler, 앞의 책, pp. 80-81.

5. Rosemary R. Ruether, "기독교", in Arvind Sharma, ed., 『세계 종교 속의 여성』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7) p. 209.
6. 저명한 성인들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는 Karen Armstrong, 『여성에 따른 복음서』 (London: Elm Tree Books, 1986) pp. 52-62 참조. Nancy van Vuuren, 『교회, 마녀 사냥꾼, 그리고 다른 성차별주의자들이 실행한 여성의 전복』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pp. 28-30 도 참조.
7. Swidler, 앞의 책, p. 140.
8. Denise L. Carmody, "유대교", in Arvind Sharma, ed., 앞의 책, p. 197.
9. Swidler, 앞의 책, p. 137.
10. 같은 책, p. 138.
11. Sally Priesand, 『유대교와 새로운 여성』 (New York: Behrman House, Inc., 1975) p. 24.
12. Swidler, 앞의 책, p. 115.
13. Lesley Hazleton, 『이스라엘 여성: 신화 뒤의 현실』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7) p. 41.
14. Gage, 앞의 책, p. 142.
15. Jeffrey H. Togay, "간음," 『유대교 백과사전』, Vol. II, col. 313. 또한, Judith Plaskow, 『시나이 산에 다시 서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유대교』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90) pp. 170-177 참조.
16. Hazleton, 앞의 책, pp. 41-42.
17. Swidler, 앞의 책, p. 141.
18. Matilda J. Gage, 『여성, 교회, 그리고 국가』 (New York: Truth Seeker Company, 1893) p. 141.
19. Louis M. Epstein, 『유대교 혼인 계약』 (New York: Arno Press, 1973) p. 149.
20. Swidler, 앞의 책, p. 142.
21. Epstein, 앞의 책, pp. 164-165. Priesand, 앞의 책, p. 15 도 참조.
22. 같은 책, pp. 112-113. Priesand, 앞의 책, p. 15 도 참조.
23. James A. Brundage, 『중세 유럽의 법, 성, 그리고 기독교 사회』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p. 88.
24. 같은 책, p. 480.
25. R. Thompson, 『스튜어트 시대 잉글랜드와 아메리카의 여성』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4) p. 162.
26. Mary Murray, 『아버지의 법』 (London: Routledge, 1995) p. 67.
27. Gage, 앞의 책, p. 143.
28. 예를 들어, Jeffrey Lang, 『항복하기 위한 투쟁』 (Beltsville, MD: Amana Publications,

- 1994) p. 167 참조.
29. Elsayyed Sabiq, 『순나의 법학』 (Cairo: Darul Fatah lile'lam Al-Arabi, 11 판, 1994), vol. 2, pp. 218-229.
  30. Abdel-Haleem Abu Shuqqa, 『사도 시대의 여성 해방』 (Kuwait: Dar al Qalam, 1990) pp. 109-112.
  31. Leila Badawi, "이슬람", in Jean Holm and John Bowker, ed., 『종교 속의 여성』 (London: Pinter Publishers, 1994) p. 102.
  32. Amir H. Siddiqi, 『이슬람 역사 연구』 (Karachi: Jamiyatul Falah Publications, 3 판, 1967) p. 138.
  33. Epstein, 앞의 책, p. 196.
  34. Swidler, 앞의 책, pp. 162-163.
  35. The Toronto Star, 1995 년 4 월 8 일.
  36. Sabiq, 앞의 책, pp. 318-329. Muhammad al Ghazali, 『정체되고 들어온 전통 사이의 여성 문제』 (Cairo: Dar al Shorooq, 4 판, 1992) pp. 178-180 도 참조.
  37. 같은 책, pp. 313-318.
  38. David W. Amram, 『성경과 탈무드에 따른 유대교의 이혼법』 (Philadelphia: Edward Stern & CO., Inc., 1896) pp. 125-126.
  39. Epstein, 앞의 책, p. 219.
  40. 같은 책, pp. 156-157.
  41. Muhammad Abu Zahra, 『이슬람 법학의 주간』 (Cairo: al Majlis al A'la li Ri'ayat al Funun, 1963) p. 66.
  42. Epstein, 앞의 책, p. 122.
  43. Armstrong, 앞의 책, p. 8.
  44. Epstein, 앞의 책, p. 175.
  45. 같은 책, p. 121.
  46. Gage, 앞의 책, p. 142.
  47. B. Aisha Lemu and Fatima Heeren, 『이슬람의 여성』 (London: Islamic Foundation, 1978) p. 23.
  48. Hazleton, 앞의 책, pp. 45-46.
  49. 같은 책, p. 47.
  50. 같은 책, p. 49.
  51. Swidler, 앞의 책, pp. 144-148.
  52. Hazleton, 앞의 책, pp. 44-45.
  53. Eugene Hillman, 『재고된 일부다처제: 아프리카 복수 결혼과 기독교 교회』 (New York: Orbis Books, 1975) p. 140.

54. 같은 책, p. 17.
55. 같은 책, pp. 88-93.
56. 같은 책, pp. 92-97.
57. Philip L. Kilbride, 『우리 시대를 위한 복수 결혼』 (Westport, Conn.: Bergin & Garvey, 1994) pp. 108-109.
58. The Weekly Review, 1987 년 8 월 1 일.
59. Kilbride, 앞의 책, p. 126.
60. John D'Emilio and Estelle B. Freedman, 『친밀한 문제: 아메리카의 성의 역사』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88) p. 87.
61. Ute Frevert, 『독일 역사 속의 여성: 부르주아 해방에서 성적 해방까지』 (New York: Berg Publishers, 1988) pp. 263-264.
62. 같은 책, pp. 257-258.
63. Sabiq, 앞의 책, p. 191.
64. Hillman, 앞의 책, p. 12.
65. Nathan Hare and Julie Hare, ed., 『흑인 성 정치의 위기』 (San Francisco: Black Think Tank, 1989) p. 25.
66. 같은 책, p. 26.
67. Kilbride, 앞의 책, p. 94.
68. 같은 책, p. 95.
69. 같은 책.
70. 같은 책, pp. 95-99.
71. 같은 책, p. 118.
72. Lang, 앞의 책, p. 172.
73. Kilbride, 앞의 책, pp. 72-73.
74. Sabiq, 앞의 책, pp. 187-188.
75. Abdul Rahman Doi, 『샤리아의 여성』 (London: Ta-Ha Publishers, 1994) p. 76.
76. Menachem M. Brayer, 『랍비 문학에서의 유대 여성: 심리사회적 관점』 (Hoboken, N.J: Ktav Publishing House, 1986) p. 239.
77. 같은 책, pp. 316-317. Swidler, 앞의 책, pp. 121-123 도 참조.
78. 같은 책, p. 139.
79. Susan W. Schneider, 『유대인이자 여성』 (New York: Simon & Schuster, 1984) p. 237.
80. 같은 책, pp. 238-239.
81. Alexandra Wright, "유대교", in Holm and Bowker, ed., 앞의 책, pp. 128-129.
82. Clara M. Henning, "교회법과 성별 전쟁" in Rosemary R. Ruether, ed., 『종교와

성차별주의: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에서 여성의 이미지』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4) p. 272.

83. Donald B. Kraybill, 『아미시 문화의 수수께끼』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9) p. 56.
84. Khalil Gibran, 『생각과 명상』 (New York: Bantam Books, 1960) p. 28.
85. The Times, 1993 년 11 월 18 일.